

## 개인 · 가계 · 환경변수가 가계의 재무영역별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향숙, 이종혜<sup>†</sup>

전주기전여자대학 소비자정보과

### Effects of Personal, Household,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in Financial Dimensions

Hyang-Sook Hong, Jong-Hye Lee<sup>†</sup>

*Dept. of Consumer and Information studies, Chonju Kijeon Women's Colle.*

####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effects of personal, household,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in financial dimension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are constructed with 5 dimensions : income, expenditure, debt, investment and risk management.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 1) to examine the level of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to the sub-dimensions. 2) to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influence on the level of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to the dimensions.

The sample consisted of 792 married women living in Seoul.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analysis included Reliability, Frequencies, Percent, Mean, Standard Devi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 1) Among the sub-dimensions, the score of risk management is the most high, 39.00. 2)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s and factors which influence on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to the 5 dimensions. (*Korean J of Human Ecology* 2(1):12-24, 1999)

KEY WORDS :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income, expenditure, debt, investment, risk management.

---

<sup>†</sup>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Consumer and Information studies, Chonju Kijeon Women's College,  
177-1 Chunghwasan-dong, Wansan-gu, Chunju, Chubuk, 560-701, Korea  
Tel : 0652-280-5219  
E-mail : jonghyelee@hanmail.net

## I. 문제제기

가계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하나의 경제체계로서 가계의 경제활동은 가족원의 삶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가족원의 가치를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의 재무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재무관리행동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의 가계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즉 인플레이션의 발생, 실업의 증가, 소득중단의 위험성 증가 등은 가계에 많은 위협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계는 가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같은 경제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성공적인 재무관리를 하여 경제적 복지를 이루는 가계와 그렇지 못한 가계가 있음을 볼 때, 개인의 특성이 재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가계를 운영하는 주체인 주부가 재무영역과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얼마나 잘 실천하는가에 따라 그 가계의 경제적 복지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재무관리는 소득, 지출, 부채, 투자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과 가계의 특성과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실생활의 재무관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의 악화와 개인의 재무관리 능력 미비 등의 이유로 가계재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계가 증가하고 극단적인 경우에 개인파산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따라서 가계의 경제적 복지증진을 위해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그 밑바탕이 되므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개인, 가계, 환경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런데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재무관리행동의 특정영역만을 기술적으로 다루었거나, 재무관리유형에 따른 재정상태, 재정문제 등을 살펴본 연구들로 재무관리행동을 영역별로 구분하고 영역별 재무관리행동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의 영역을 이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구분한 후, 각 영역별 재무관리행동의 수준은 어떠한지, 재무관리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개인변수, 가계변수, 환경변수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재무관리행동의 개념과 영역

현대사회에서는 가계의 경제기능 즉 구매, 소비, 생산, 공급의 기능과 금융수단인 화폐의 기능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가계관리의 개념은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의 개념과 일반적으로 일치한다(김순미, 1987).

본 연구에서는 김순미(1987), 정선희(1987), 박명희(1997), 홍향숙(1997), 이기춘 외(1998)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재무관리행동이란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자산을 증대시키고 보전하여 가계가 기대하는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해 가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 즉 재무목표설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무목표를 설정하며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며, 점검,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재무관리 영역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Titus 등(1989)은 재무관리와 관련된 실제적인 활동 즉 재무관리행동을 예산수립, 가계부기록, 신용사용, 저축, 위기관리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김은양(1994)은 가계관리행동 즉 재무관리행동을 재정계획, 저축, 구매, 자녀용돈교육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소비자교육의 내용을 분류한 연구(Bannister & Monsma, 1980; 성영애, 1988)를 통해서 재무관리행동과 관련된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nnister와 Monsma(1980)는 재무관리를 7개의 영역, 즉 금전자산의 획득, 지출계획, 차용, 저축, 투자, 보호 그리고 세금납부로 나누었으며, 성영애(1988)는 가계경제계획 및 실행방법, 저축과 투자, 보험, 신용, 조세와 지역사회자원, 주택으로 나누었다. 재무관리교육의 요구를 분석한 홍향숙(1997)은 재무관리의 영역을 금전자산의 획득, 지출계획, 부채관리 및 신용, 저축, 투자, 보험, 주택 및 그 외 부동

산, 지역사회자원, 그리고 세금으로 나누었다.

이기춘 등(1998)은 재무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친 재무설계, 수입과 지출의 관리, 소득과 자산의 보호, 자산의 증대, 노후설계와 상속을 재무관리의 주요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수입과 지출관리에는 자금관리, 차용관리, 세금관리, 지출관리를 포함시켰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홍향숙(1997)과 이기춘 등(1998)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의 하위영역을 소득관리, 지출관리, 부채관리, 투자관리, 위험관리로 구성하였다. 이들 영역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관리행동

가계의 바람직한 소득상태는 안정과 여유에 있다. 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정소득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다. 근로소득은 정신적·육체적 노력에 의해서 얻는 소득이지만 재산소득에 비하여 불안정하다.

소득의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천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소득을 얻는 가족원을 다양화하고, 근로소득이외의 자산소득이나 이전소득을 통한 소득원천의 다양성도 모색해야 한다.

2) 지출관리행동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현명하게 지출하는 것이다. 지출은 가계에서 가족원이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 소득이 지출되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계의 지출은 재무관리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 중요하다.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해 지출을 결정할 때는 지출예산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구분하며, 지출비목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이기춘 등, 1998).

3) 부채관리행동

부채의 이용은 가계의 미래 재무상황과 관련하여 현재 부족한 예산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가계 재무관리방법이다. 소비에 대한 기간간 선택이론에 의하면 가계는 부채를 이용하여 일생에 걸쳐 가계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소비의 총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Herendeen, 1974). 이런 경우 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한 가계에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채는 일종의 고정지출 항목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고 소비패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가계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심영, 1993). 가계의 부채이용은 부채의 이용목적과 그 관리방법에 따라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4) 투자관리행동

투자관리행동은 재무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계가 투자행동을 함에 있어서 투자대상의 선택, 안전성과 수익성의 동시적 고려, 투자대상의 매입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결정은 가계투자행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투자관리란 투자자산의 선택에서 관리, 투자성과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투자목표, 수익률, 위험요소, 세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가계의 소득과 투자기록에 관한 회계, 기본 용어들, 세금 등 투자에 관한 기초지식과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안수미, 1998).

5) 위험관리행동

인간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 질병, 실업, 화재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관리는 가계 재무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가계가 위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다음으로 위험의 잠재적 손실을 평가하고 가능한 위험의 빈도와 위험의 상대적인 심각성을 추정해 보아야 한다. 또한 위험관리 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하며 주기적인 평가와 조정을 해야 한다. 가계가 처한 환경이 변화하면 위험의 내용과 발생가능성도 변화한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위험관리 방법도 재고되어야 한다(이기춘 등, 1998).

## 2.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개인 변수

#### (1) 연령

연령이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Titus 등(1989)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재무계획을 더 잘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명숙(1990)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계관리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재무관리행동의 하위영역간의 관계를 살펴본 김은양(1994)에 의하면 부인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20대 연령집단이 40대와 50대의 연령집단보다 저축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직업

기혼여성의 직업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이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최동숙, 1991; 김순미, 1993)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강혜경(1990)은 전문·관리직 집단이 사무·기술직 집단과 자영업상공업 집단보다 더 적극적인 자산증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범수인(1991)의 연구에서는 높은 직업 지위에 있는 주부들이 낮은 직업 지위에 있는 주부들보다 더 많은 재무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이 합리적이고, 예산을 정기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Beutler와 Mason, 1987; Titus 등, 1989; 임정빈 등, 1995). 김은양(1994)에 의하면 부부 전체의 재무계획행동의 경우 대졸집단이 고졸이하의 집단보다 재무계획을 더 잘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미(1986)에 의하면 주부의 교육수준과 관리능력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특히 계획부문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정우·오경희(1988)에 의하면 교육수준은 가계관리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내외통제성

내적 통제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외적 통제성을 가진 사람

들은 세상사가 개인의 행동과 무관하게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부의 통제소재는 재무관리행동에 필요한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고 관리행동이나 관리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명숙(1995)에 의하면 내적통제 지향적일 경우 가계분석 및 평가전략, 예산세우기전략, 저축전략, 투자전략, 세금관리전략, 신용카드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2) 가계 변수

#### (1) 소득

가계소득은 가정생활상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기춘, 1991)으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선형(1995)에 의하면 대체로 월평균 총소득이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itus 등(1989)의 연구에서는 가계소득이 재무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명숙(1995)에 의하면 가계관리전략에 있어 월평균 수입이라는 객관적 변인은 통계상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에 소득적정도라는 주관적 변인은 여러 영역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 (2) 주택소유여부

주택소유 여부와 재무관리행동을 살펴보면, 이홍선(1989)은 주택을 소유한 가계가 저축을 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혜경(1990)은 주택소유 집단이 무주택 집단보다 더 합리적인 저축, 투자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주택의 소유여부가 가정의 경제목표달성 여부에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3) 소득안정성

소득안정성이라 함은 취업상태나 소득의 흐름이 외부 경제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가계의 소득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을 말한다. 안정적인 지 못한 가계소득 흐름을 가지고 있는 가계는 재무관리영역 중 소득관리, 지출관리, 투자관리 등에 있어 가계소득이 안정적인 가계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소득적절성

Williams 등(1984)의 연구에서는 소득적절성과 가정의 경제문제 점수와의 부적 상관으로 소득적절성이 증가할수록 경제문제가 감소하였다. 주부의 소득적절성이 높을수록 경제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남편과 부인 모두의 경제생활만족도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큰 변인이었다(박미금, 1993).

3) 환경 변수

(1) 물가불안

물가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 사회에 속한 모든 가계에 대하여 동시효과가 있지만, 효과의 크기는 개별 가계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가계 관리자가 느끼는 물가불안의 수준에 따라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고용불안

고용에서의 불안은 실업에 대한 불안과 재취업가능성에 대한 걱정과 같은 고용 불확실성, 일정기간 동안 취업 또는 실직의 기간과 횟수, 고용지위의 하향, 노동시장에의 재진입 어려움, 강제된 퇴직 같은 고용불안정성 등이다.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의 산업전반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 가계가 느끼는 고용불안은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계의 위험관리, 지출, 투자 등과 같은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재무영역별 재무관리행동 수준은 어떠한가?

1-1. 재무영역별 전반적인 재무관리행동 수준은 어떠한가?

1-2. 재무영역의 문항별 재무관리행동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재무영역별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수(개인적 변수, 가계 변수, 환경 변수)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변수의 정의 및 조사도구의 구성

####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1) 재무관리행동

'가계의 재정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가계의 현재와 미래의 소득과 자산을 보전하고 증식시켜 가계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이다. 본 연구에서 재무관리행동은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5개의 하위영역, 즉 소득관리행동, 지출관리행동, 부채관리행동, 투자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으로 구성하였다.

##### (2) 소득관리행동

가계의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으로 가계소득의 절대적인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행동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행동(절세행동)을 의미한다.

##### (3) 지출관리행동

가계소득의 실질적 증가를 위한 가계 소비지출의 효율적인 배분 및 사용과 관련된 행동을 의미한다.

##### (4) 부채관리행동

신용카드의 할부이용,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등 가계의 소비수요 및 경제적 목표달성에 있어서 부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상환과 관련된 행동을 의미한다.

##### (5) 투자관리행동

가계의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이용한 저축, 증권투자, 부동산투자의 효과적인 이용과 관련된 행동을 의미한다.

##### (6) 위험관리행동

질병, 사고, 실업, 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소득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을 의미한다.

##### (7) 내외통제성

내적 통제 지향성과 운명지향성정도를 의미한다.

##### (8) 물가불안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 및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의 비율에 대한 느낌을 의미한다.

(9) 고용불안

고용불확실성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 및 실업경험을 의미한다.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내용에 대한 타당도는 소비자학 전공자들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종속변수인 재무관리영역은 각 영역별로 정보수집, 계획, 실행, 점검, 평가가 포함되도록 10문항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표 4〉~〈표 8〉 참조).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크론바하 알파 .84이상이었다. 독립변수들의 척도 구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기혼여성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지역은 서울로 단계 층화집락표집에 의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자료수집은 1998년 6월 17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시행되었다. 총 1062부를 배포하여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9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PC+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백분율,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 중 교육수준은 교육년수로 환산하였고, 소득

수준, 자산, 그리고 총부채액은 만원 단위로 환산하였다. 취업여부(유무), 주택소유여부(유무)의 변수값은 취업 여성일 경우 1, 비취업여성일 경우 0(기준)으로, 자가일 경우 1, 무주택일 경우 0(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중회귀 가정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잔차 분석을 하였는데, 표준화된 잔차의 히스토그램이 정규분포에 가깝고, 도식화에서 잔차변동이 체계적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었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2. 영역별 재무관리행동의 수준

1) 재무영역별 재무관리행동 수준

기혼여성의 가계 재무관리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혼여성의 영역별 재무관리행동을 보면 위험관리행동의 평균점수가 39.00으로 가장 높으며, 이를 5점 척도상의 점수로 환산하면 3.82인데, 이 점수는 많은 기혼 여성들이 위험관리행동에 있어서 '대체로 그렇다'는 4점<sup>1)</sup>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표 3〉 참고).

〈표 1〉 조사도구의 구성

변수명	척도내용	척도형식	문항수	문항범위	신뢰도
소득의 적절성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	5점 리커트	4	4-20	.82
소득의 안정성	1) 소득 유입시기의 안정성 2) 소득 금액의 안정성	5점 리커트	5	5-17	.80
물가불안	1)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 2)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의 비율에 대한 느낌	5점 리커트	3	5-16	.50
고용불안	1) 고용불안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 2) 실업기간	5점 리커트	4	4-20	.69
내외통제성	1) 내적 통제 지향성 2) 운명 지향성	5점 리커트	7	10-35	.66
일반적 특성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성, 월평균가계소득, 자가소유, 자산, 총부채액				

1)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는 5점 리커트 척도를 구성할때 '항상(매우) 그렇다'에 5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그저 그렇다'에 3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어 구성하였다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연령	20대	102(12.9)	순자산	1억원 미만	237(29.9)
	30대	344(43.4)		1-2억 미만	212(26.8)
	40대	242(30.6)		2-3억 미만	134(16.9)
	50대이상	104(13.1)		3-5억 미만	127(16.0)
	계	792(100.0)		5억원 이상	82(10.4)
	평균	39.39	계	792(100.0)	
교육수준	중졸이하	77( 9.7)	주택소유형태	월세·무상	23( 2.9)
	고졸	360(45.5)		전세	208(16.3)
	대졸	336(42.4)		자가	561(70.8)
	대학원이상	19( 2.4)		계	792(100.0)
계	792(100.0)	평균	21,565.65(만원)		
취업여부	비취업	562(71.0)	부채여부	있음	427(53.9)
	취업	230(29.0)		없음	365(46.1)
	계	792(100.0)		계	792(100.0)
월평균 가계소득	150만원미만	99(12.5)	총부채액	1천만원 미만	121(28.3)
	150-250만원미만	264(33.3)		1천-2천만원 미만	108(25.3)
	250-350만원미만	171(21.6)		2천-3천만원 미만	73(17.1)
	350-450만원미만	120(15.2)		3천-4천만원 미만	38( 8.9)
	450만원이상	138(17.4)		4천만원 이상	87(20.4)
	계	792(100.0)		계	427(100.0)
평균	291,667(만원)	평균	1,229,798(만원)		

다음으로 부채관리행동, 소득관리행동, 지출행동 순으로 나타났으며, 투자관리행동 수준이 가장 낮았다.

〈표 3〉 영역별 재무관리행동의 측정점수 분포

	소득관리 행동	지출관리 행동	부채관리 행동	투자관리 행동	위험관리 행동
평균(5점척도상)	36.96(3.69)	35.47(3.55)	38.08(3.81)	32.09(3.21)	39.00(3.82)
표준편차	5.90	6.90	7.39	7.99	7.20
범위	15-50	10-50	10-50	10-50	10-50

2) 재무영역의 문항별 재무관리행동 수준

재무관리행동의 수준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영역별 개별문항의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살펴보았다.

(1) 소득관리행동

소득관리행동 영역에서 각 문항별 재무관리행동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소득관리 영역의 경우 소득관리를 위한 행동 중에서 '세금의 납부기일 지키기'와 '청구된 세금액과 세금납부의 확인'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들이 가계의 소득관리를 함에 있어서

가계소득의 절대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소득관리 행동보다 가산세 등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가계 주소소득자의 업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및 관련 기능 습득의 점검과 관련된 행동을 가장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출관리행동

지출관리행동의 경우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소득을 고정지출에 먼저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변동지출에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과 '고정지출의 금액과 지출여부의 점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계지출 내용의 결산과 이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참조).

(3) 부채관리행동

부채관리를 위한 행동 중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높을 경우 부채를 우선 갚고 저축한다'와 '부채상환 정도의 확인'을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출시기 및 대출액에 대한 계획의 수립'은 기타 부채

〈표 4〉 문항별 소득관리행동수준

문항	평 균	표준편차
1. 신문, 잡지, 전문서적 등에 가장(납편)이나 가족원들의 직장일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올려두거나 메모해둔다.	3.41	1.12
2. 신문·잡지의 경제란, 전문서적 등에 가정생활과 관련된 세금혜택제도 및 절세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메모해두거나 올려둔다.	3.38	1.06
3. 연중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 납부시기를 파악하여 미리 세금납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3.43	1.10
4. 가계소득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근로소득(예: 월급 등)뿐만 아니라 재산소득(예: 은행·사채이자, 집세 등)이 있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세웠다).	3.43	1.06
5. 세금의 납부기일을 지킴으로써 가산세를 지불하지 않도록 한다.	4.51	.74
6. 절약, 부업, 제테크 등을 통해 근로소득(예: 월급 등)이외에 재산소득(예: 은행·사채이자, 집세 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했다).	3.72	1.03
7. 가계 주요 소득자(예: 남편)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지식이나 기능(예: 자격증, 컴퓨터 사용 등)을 제때에 익히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3.36	1.01
8.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은 없는지, 세금을 연체하지 않고 제때에 납부했는지 확인한다.	4.20	.86
9. 우리집의 씬씀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가계소득이 적절한지 또는 부족한지 평가해 본다.	3.98	.76
10. 절세방법을 최대한 활용했는지 평가해보고, 그 결과를 다음 기회에 반영한다.	3.57	.95

〈표 5〉 문항별 지출관리행동수준

문항	평 균	표준편차
1. 가족원들에게 그들 각자에 있어서 지출내용, 금액, 그리고 그 중요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물어본다.	3.32	1.01
2. 물가변동(생필품 등의 가격인상)이나 알뜰구매장소(상설할인매장, 할인매장 등) 등 효율적인 지출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신문, 잡지를 올려두거나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3.67	1.00
3. 가계지출에 관한 예산을 세우고 이에 맞추어 지출하는 것을 우리집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3.55	.94
4. 지출액이 정해져 있는 세금, 저축, 부채상환, 주거비, 수업료 등의 금액과 지출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식비, 피복비 등의 금액을 매달 계산해 본다.	3.62	1.07
5. 소득을 꼭 지출해야 할 부분(예: 저축, 세금, 관리비, 수업료 등)에 먼저 배분하고 남은 금액으로 식비, 피복비, 교양오락비 등에 사용한다.	4.05	1.00
6. 가계의 지출비목(예: 식비, 교통비 등)을 구분해서 각 비목별 지출내용 및 지출금액을 가계부에 기록한다.	3.28	1.28
7. 지출액이 정해져 있는 세금, 관리비, 수업료 등이 해당날짜에 제대로 지출되고 있는지, 혹은 연체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4.32	.82
8. 지출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식비, 피복비, 교양오락비 등이 그 비목의 한달 사용 금액 내에서 지출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3.58	1.02
9. 어떤 비목의 예산이 모자라게 책정되었으며, 어떤 비목의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는지를 두 세 달마다 주의 깊게 분석해본다.	3.12	1.01
10. 월말과 연말에 가계지출 내용을 결산하며, 이때 지출이 가족원들의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었는지 평가·반성한다.	2.97	1.06

관리행동에 비해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기혼여성들이 가계의 부채를 관리함에 있어 부채상환행동과 부채상환 정도에 대한 점검은 잘하고 있으나 주택마련 등과 관련해서 대출이 필요한 시기와 대출금액을 고려한 대출계획은 덜 세우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참조).

(4) 투자관리행동

기혼여성들은 가계의 투자를 위한 행동 중에서 '투자할 돈을 미리 떼어놓음'과 같은 행동을 가장 잘하고 있다. 반면에 투자행동에 대한 점검 즉 '투자시 위험분산 정도의 점검'과 '투자목표를 고려한 투자방법의 평가'와 관련된 행동은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참조)



〈표 6〉 문항별 부채관리행동수준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신용카드를 이용해 할부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할부수수료(연이자율)와 연체이율을 알아둔다.	3.68	1.16
2. 주택마련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의 팜플렛을 관심 있게 살펴보거나(살펴보았거나) 금융기관(예: 주택은행 등)의 대출담당 직원과 상담한다(상담하였다).	3.54	1.23
3. 주택마련, 확장과 관련해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를 계산해 보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세웠다).	3.42	1.21
4. 부채가 있을 경우(또는 과거에 부채가 있었을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빌린 부채의 총계를 계산해보고 상환기간, 월별상환금액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세웠다).	3.75	1.12
5.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할부대금과 현금서비스 이용액을 갚기 위해 지출되는 돈이 생활비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3.72	1.14
6. 저축에 대한 이자율보다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 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우선 갚고 난 후 저축을 한다.	4.21	.91
7. 현재 부채가 있을 경우(또는 과거에 부채가 있었을 때) 매월 부채(예: 대출이나 용자, 신용카드의 할부이용, 사채 등)를 제대로 갚고 있는지 자주 확인해 본다(보았다).	4.23	.91
8. 가계자금(주택자금, 학자금용자 등)이 필요할 때(또는 과거에 필요했을 때) 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확인하였다).	3.91	1.04
9. 현재 부채가 있을 경우(또는 과거에 부채가 있었을 때)매달 이를 갚기 위한 돈이 가계 소득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해본다(평가해 보았다).	3.88	1.00
10. 현재 부채가 있을 경우(또는 과거에 부채가 있었을 때) 1년 단위로 가계의 부채상환 결과를 평가해본다(보았다).	3.75	1.07

〈표 7〉 문항별 투자관리행동수준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투자(저축, 증권, 부동산)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금융기관의 팜플렛을 이용하거나 전문가(부동산, 은행, 증권회사 직원)와 상담한다.	3.24	1.17
2. 신문, 잡지의 경제란, PC통신, 팩스 등 서적을 이용하여 투자(저축, 증권,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오려두거나 메모해둔다.	3.02	1.16
3. 1~5년 단위로 가계의 투자목표(예: 주택마련, 자녀교육, 노후준비 등)를 설정한다.	3.31	1.11
4. 가계의 투자목표와 현재의 경제수준에 적절한 투자방법(예: 적금, 예금, 신탁, 증권, 부동산 등) 및 투자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3.47	1.04
5. 투자(저축)할 돈은 생활비로 쓰이기 전에 미리 떼어놓는다.	3.80	1.12
6. 금리 상승시에는 단기금융상품(6개월~1년)에 투자하며, 금리 하락시에는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장기금융상품(2년~5년)에 투자한다.	3.20	1.20
7. 이자율 변동이나 환율변동에 관심을 갖고, 이자율 변동시 금융기간에 문의하여 유리한 상품으로 바꾼다.	3.22	1.17
8. 가계재산을 저축, 증권, 부동산 등으로 나누어 각 항목이 총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그 배분이 적절한지 1~2년 단위로 체크한다.	2.78	1.12
9. 선택한 저축방법과 투자방법이 저축목표와 투자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지 6개월~1년 단위로 평가한다.	2.94	1.09
10. 1년 단위로 가계의 저축금액, 투자금액을 기록해서 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가를 평가·반성한다	3.11	1.09

(5) 위험관리행동

위험관리를 위한 '보험가입'과 '보험료 이체' 그리고 '보험료 납입 확인' '보험의 보상범위와 효력발생 확인'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계획은 덜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기혼여성들은 위험관리와 관련된 계획은 덜 세우나 위험관리를 위한 실행과 점검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8〉참조).

〈표 8〉 문항별 위험관리행동수준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보험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가(보험회사 직원, 생활설계사 등)와 상담한다.	3.69	1.14
2. 보험가입시 계약서나 보험약관의 내용(예: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입자의 고지의무 등)을 자세히 읽어본다.	3.86	1.01
3. 교통사고나 실직, 질병에 대한 준비책의 마련을 우리집의 중요한 문제로 설정하였다.	3.44	1.08
4. 교통사고나 실직, 질병으로 인한 건강, 재산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해야 할 보험의 형태, 보험금액, 보험가입 기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3.39	1.11
5.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또는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였다.	4.18	1.05
6. 보험료는 자동이체를 시킨다.	4.04	1.31
7.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4.32	.97
8. 보험가입시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는 어느 정도이며 보험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4.03	.99
9. 가계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 및 보험금이 가계의 위험대비책으로 적절한지 평가한다.	3.68	1.02
10. 월평균 보험납입금이 가계소득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지(월평균 소득의 5% 이내가 적당), 다른 지출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평가한다.	3.60	1.03

2. 재무관리 영역별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재무관리행동과 관련된 변수를 개인변수, 가계변수, 환경변수로 구분하고, 제 변수들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각 하위영역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1) 소득관리행동

내외통제성, 취업여부, 소득안정성 변수가 소득관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변수들의 총 설명

〈표 9〉 영역별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독립	종속		소득관리행동		지출관리행동		부채관리행동		투자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연령	.059	.077	.046	.051	-8.0E-03	-8.3E-03	-8.6E-03	-8.2E-03	-.083	-.093*		
교육수준	.038	.016	-.122	-.044	-.061	-.020	-.047	-.015	-.313	-.113**		
내외통제성	.294	.196***	.234	.134***	.199	.107**	.309	.154***	.138	.080*		
취업여부 <sup>#</sup>	-.100	-.077*	-1.126	-.074*	.642	.039	-.993	-.056	.246	.16		
월평균가계소득	1.8E-03	.058	2.1E-03	.057	3.5E-03	.090	3.0E-03	.071	1.6E-03	.45		
소득안정성	.185	.088*	.317	.128**	.102	.038	.188	.066	.097	.039		
소득적절성	.051	.026	-.096	-.042	.042	.017	.530	.200***	.185	.081		
자가소유 <sup>#</sup>	.185	.014	-.081	-5.3E-03	1.194	.073	1.870	.106**	.419	.028		
자산	-7.2E-06	-.034	-2.9E-05	-.116*	-3.2E-05	-.120**	-1.1E-05	-.037	-3.8E-06	-.015		
총부채액	-1.3E-06	-4.6E-04	-1.1E-04	0.032	3.5E-04	.096**	-4.1E-04	-.104**	-2.6E-05	-7.7E-03		
물가불안	.213	.062	.341	.085*	.515	.120**	.249	.054	.387	.097**		
고용불안	-.075	-.042	-.086	-.041	-.170	-.076	-.026	-.011	-.202	-.097*		
상수		22.156		24.523		25.963		12.719		35.314		
R <sup>2</sup>		.089		.061		.069		.157		.056		
F		6.378***		4.178***		4.781***		12.042***		3.874***		

<sup>#</sup> 비취업여성 = 0, <sup>\*\*</sup> 무주택 = 0  
\*p<.05, \*\*p<.01, \*\*\*p<.001

력은 8.9%이다. 변수들의 영향력의 크기는 내외통제성 ( $\beta = .196$ ), 소득안정성 ( $\beta = .088$ ), 취업여성 ( $\beta = -.077$ )의 순이다. 기혼여성들이 내적 통제를 할수록, 소득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취업주부보다 비취업주부가 가계의 소득관리행동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출관리행동

내외통제성 ( $\beta = .134$ ), 소득안정성 ( $\beta = .128$ ), 자산 ( $\beta = -.116$ ), 물가불안 ( $\beta = .085$ ), 취업여성 ( $\beta = -.074$ )순으로 지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1%이다. 즉 조사대상자가 내적 통제를 할수록, 소득 안정성이 높을수록, 순자산이 적을수록, 물가불안을 크게 느낄수록, 취업여성보다 비취업여성이 가계의 지출관리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들이 내적 통제를 할수록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가족구성원들의 욕구와 가계의 목표달성을 위해 제한된 자원을 가계 소비지출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가계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들어올수록 가계의 지출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이의 실행 및 점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안정적일수록 지출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자원이 풍부하므로 합리적인 지출행동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와 관련된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관리행동과 마찬가지로 취업여성보다 비취업여성이 가계의 지출관리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여성의 경우 시장노동에 시간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기타 비시장노동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시간의 양이 적게 된다. 이에 취업여성은 부족한 시간으로 인하여 비취업여성에 비해 소득관리나 소비지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즉 정보탐색, 가계지출의 예산수립, 가계부 기록, 지출내용 평가 등을 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시간이라는 자원이 효율적인 소득관리와 지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sup>2)</sup>.

2)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지출관리행동 수준이 낮은 이유로 시간제약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취업여성의 교육수준이 비취업여성보다 낮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지식제약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취업여부와 교육수준과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순수한 위험관리행동과 관련된 문항인 3, 4, 5, 9만으로 분석을 다시 해 본 결과, 동일한 분석결과가 나왔다.

(3) 부채관리행동

순자산 ( $\beta = -.120$ ), 물가불안 ( $\beta = .120$ ), 내외통제성 ( $\beta = .107$ ), 총부채액 ( $\beta = .096$ ) 순으로 부채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9%이다. 즉 순자산이 적을수록, 물가불안을 크게 느낄수록, 내적 통제를 할수록, 그리고 총부채액이 많을수록 가계는 부채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투자관리행동

소득적절성, 내외통제성, 자가소유, 총부채액 변수가 투자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15.7%이다. 변수들의 영향력의 크기는 소득적절성 ( $\beta = .200$ ), 내외통제성 ( $\beta = .154$ ), 자가소유 ( $\beta = .106$ ), 총부채액 ( $\beta = -.104$ )의 순이다. 월평균 가계소득이 생활하기에 적절하다고 느낄수록, 내적 통제를 할수록, 총부채액이 적을수록 그리고 자가를 소유한 경우가 무주택의 경우보다 투자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위험관리행동

교육수준 ( $\beta = -.113$ ), 물가불안 ( $\beta = .097$ ), 고용불안 ( $\beta = -.097$ ), 연령 ( $\beta = -.093$ ), 그리고 내외통제성 ( $\beta = .080$ ) 순으로 위험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6%이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물가불안을 크게 느낄수록, 고용불안이 낮을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그리고 내적 통제를 할수록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불안이 높은 사람은 이미 위험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위험관리행동을 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sup>3)</sup>.

본 연구에서 위험관리행동은 사고·실직·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선택에 필요한 정보수집, 보험가입 계획의 수립, 보험의 가입, 보험료 납부 점검,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대한 평가 등 위험관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생활 안정의 필요와 의식구조가 미래지향적인 형태를 띄게 되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입체적으로 위험

관리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위험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계가 사고·실직·질병 등과 같은 위험에 처했을 경우 이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보험선택시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보험회사 직원에게 더 자세하게 물어본다든지, 사고·질병에 대한 준비로 생명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것 등이다. 이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계에서는 남편에 대한 생명보험 구매력이 낮게 나타났다(Goldsmith, 1983)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V. 결 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재무관리행동의 실태를 하위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영역별 재무관리행동 수준은 중간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특히 투자행동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관리행동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와 관련된 정보수집의 중요성과 수집 방법, 투자계획의 수립 및 구체적인 실행방법, 그리고 주기적인 평가와 관련된 행동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 요구된다.

둘째, 기혼여성의 영역별 재무관리행동에 가장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내외통제성이다. 즉 현재 주어진 자원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자신의 운명을 의지적으로 개척할 수 있게 하는 가치관 교육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재무관리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물가불안은 3가지 하위영역(지출관리행동, 부채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기간인 1998년의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설명될 수 있다.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 국제통화기금(IMF) 협정과 관련 구조조정용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세율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감소시켰으며, 또한 고금리는 부채가 있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계에 부채상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IMF의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기혼여성들이 물가불안을 크게 느낄수록 가계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며, 이자율 부담의 증가로 가계의 부채부담이 커졌으므로 가계의 부채관리행동 또한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가계의 총 부채는 투자관리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의 부채이용이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자신용의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가계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계 부채의 관리기술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소득안정성은 소득관리행동과 지출관리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가계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이 안정적으로 들어올수록 소득관리 및 지출관리와 관련된 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 소득의 안정성이 재무관리행동을 보다 잘 할 수 있게 하는 기본이 되므로 가계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가계에서는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지식과 기능을 제때에 익히며, 또한 소득의 원천을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적인 고용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가계의 소득과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환경변수로 선정된 물가불안 및 고용불안 변수보다는 개인특성변수가 더 보편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시기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실시되기 전이라서 실질적인 고용불안을 덜 느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개인변수 중에서는 내외통제성의 효과가 여러 영역에서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앞으로의 재무관련 교육에서 내적통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취업여성이 소득관리행동이나 지출관리행동에서 비취업여성보다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을 참고로 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업여성의 시간제약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예: 자동이체의 활용)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1. 강혜경(1990). 주부의 재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3):87-103.
2. 김순미(1987). 도시가계의 금융자산선택행동에 관한 연구-도시 중산층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_\_\_\_\_(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분석: 체제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195-207.
4. 김은양(1994).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가계관리행동이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박미금(1993).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와 가계관리행동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박현미(1987). 가정관리능력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성영애(1988). 소비자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교육에 대한 요구분석-주부소비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심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29-50.
9. 안수미(1988). 자산관리과정과 부부의 역할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이기춘(1991). 가정경제학. 교문사, 서울.
11. \_\_\_\_\_. 박명희, 윤정혜, 손상희, 김경자, 성영애(1998). 소비자재무설계론. 학현사.
12. 이명숙(1995). 도시 전업주부의 가치지향성·가정관리 전략·가정관리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이선형(1995). 노인단독가구의 가계재정관리와 경제생활 만족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이영옥(1990). 어머니의 가정관리 능력과 청소년의 금전관리지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이정우, 오경희(1991).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의 제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1-18.
16. 임정빈, 조미환, 이영호(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Deacon & Firebaugh의 체계적 접근법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56-169.
17. 정선희(1987). 도시주부의 재정문제 인지정도과 그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조영희(1995). 도시주부의 지출행동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 홍향숙(1997). 기혼여성의 재무관리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53-69.
20. 최동숙(1991).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1. 황덕순(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69-82.
22. Monsma, C., Banister R.(1980). "Effective Consumer Education Programs" in Processings of 26th Annual conferenc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pp.123-127.
23. Beutler, Ivan F., Mason, Jerald W.(1987). Family Cash Flow Budgeting. *Home Economics Journal* 16(1):3-12.
24. Garman E.T., Forgue, R.E.(1994). Personal finance, Fourth Edition. Houghton Mifflin Company.
25. Herendeen, J.B.(1974). The Role of Credit in the Theory of the Household. *Journal of Consumer Affairs* 8(2):157-181.
26. Schnittgrund, K.P., Backer, G.(1986). Financial management of low-income urban famili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261-270.
27. Titus, P.M., Fanslow, A.M., Hira, T.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309-318.
28. Williams, F.L., Berry, R.(1984). Intensity of family disagreement overfinances and associated factor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8:33-53.